

러시아제재에 세계 경제도 혼란 지속... “불확실성 고조”

국제 유가·밀 등 곡물 가격 급등...물류 차질도 러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 물가 압박 커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파장이 러시아를 넘어 전세계에 미치고 있다. 외신들은 당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경제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소위 경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금융 붕괴에 직면했고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서방의 제재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경쟁당사국들의 밀, 천연가스 등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도 피해를 입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는 막대한 에너지 수출에도 오랫동안 세계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국가였지만, 러시아의 침략과 제재가 미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다. 무역업자들이 세계 주요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로부터 공급 차질에 대비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러시아가 제재에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미국이 에너지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 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조치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구매가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 있던 진단도 나온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공급의 3분의1, 원유 공급의 4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 리드 도이체방크 전략가는 “지금까지는 파급 효과가 덜 심각하지만 (향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는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공급 우려를 불러일으켰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니콜라예프에서 주민들이 판매대가 거의 비어있는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다. 미국 시카고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13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옥수수 가격도 급등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는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모두 중동과 유럽에 밀을 공급하고 있으며 터키와 이집트는 러시아 밀의 최대 수입국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리비아, 예멘, 레바논과 같은 나라들의 식량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연합으로 곡

물 운송에 사용되는 흑해 항구로부터의 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로 인한 제재 여파는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치솟는 물가로 체감될 것이라고 DW는 예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뿐 아니라 알루미늄, 니켈 등 휴대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필수 금속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국가다. 또 러시아 선박에 대한 제재 등으로 글로벌 물류 차질도 예상된다.

뉴시스

바이든 “푸틴, 어느 때보다 고립 심해 한국 등 많은 동맹국과 책임 묻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 “자유세계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이날 취임 후 첫 첫 국정연설(연두교서)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캐나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스위스까지 많은 나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을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에 고통을 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과 고립됐다”고 발언하는 동안에 의원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한국 정부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대 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은행·자회사와 금융 거래를 막고 국고채 투자도 중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스베르뱅크, 대외경제은행(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 소비콤, 노비콤 등 7개 주요 러시아 은행·자회사와 금융 거래를 중지한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도 중단된다. 여기에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를 포함한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푸틴 ‘에너지 반격’ 우려... “유가 150달러 찍을 수도”

발언 수위 높아지는 푸틴... ‘고의 공급 억제’ 우려 커져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에너지를 무기로 삼을 경우 유가가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가 보도했다.

루이스 디스 라이스타드에너지 수석 석유시장 분석가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이 무기로 보류되거나 제재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나는 등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이날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8% 가량 상승한 103.41달러로 거래를 마쳐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106달러도 넘어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고의로 공급을 억제할 경우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JP모건은 러시아의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점에서 약 40% 오른 수치다.

미국처럼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CNN비즈니스는 “상호 연결된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세계 한 지역의 공급 충격은 모든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라보뱅크의 라이언 피츠모리스 에너지 전략가는 “러시아가 상품을 통해 고통을 주기 위해 흐름을 늦추는 것은 와일드 카드”라며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비즈니스는 “현재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또 서방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당초 시장에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러시아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연간 수입의 평균 4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가 심화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제 사회의 제재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RBC캐피탈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글로벌상품전략책임자는 지난 27일 고객들에게 보낸 글에서 “푸틴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에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침략이 시작되기 전부터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에너지 수출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달림 심 백악관 보좌관은 CNBC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하기로 결정했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등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채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무형 압박 등 편입된 짐으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